

사회복지 주간 동향(23.10.10.~10.13.)

1. 용인시 정책 동향

1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안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인간이 눈물을 흘릴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로봇과 다른 점”

< 이상일 시장, 12일 열린 ‘2023년 사회복지종사자 민관합동 워크숍’에 초청받아 강연 >

< 세계 유명 화가들의 인생과 작품 소개하는 예술 특강하며 복지 관계자 응원 >



-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2일 열린 ‘2023년 사회복지종사자 민관합동 워크숍’에서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160여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
 - 처인구 포곡읍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워크숍에 초청받은 이 시장은 세계 유명 미술작품의 예술적 가치와 역사를 소개하고, 예술과 사회복지의 시각을 접목해 용인특례시가 추구하는 복지정책에 대한 철학과 중요성을 강조함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영화 ‘터미네이터2’에서 로봇 역할로 나왔던 아놀드 슈워제네거는 영화에서 ‘왜 인간은 눈물을 흘리는가’라고 궁금해한다. 인간만이 이웃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눈물을 흘리고 도울 수 있음을 기계 인간인 로봇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눈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라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여러분이 실천해 온 따뜻한 나눔과 배려에 감사 인사드린다”고 말함

- 이 시장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살바토르 문디’를 소개하며 특강을 시작, ‘남자 모나리자’로 평가받는 이 작품에 대해 이 시장은 경매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에게 약 4억 5000만달러(현재 환율로 한화 약 6000억원)에 낙찰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 그림으로 기록됐다고 설명
- 색과 선 사이의 경계가 흐릿해서 신비감을 느끼게 하는 ‘스푸마토 기법’을 활용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으며, 프랑스 밖으로는 못 나가게 한 그림이라고 소개하고 이 그림의 역사, 2년 4개월간 도난 당해 실종됐다 되돌아온 사건 등 여러 이야기를 청중들에게 들려줌
- 이 시장은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르네상스를 꽃피게 했던 메디치 가문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비롯해 각 분야의 예술가와 학자들을 후원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이들이 지식을 융합해 새로운 창조를 한 것을 ‘메디치 효과’라고 부른다고 설명하면서 열린 태도와 지식의 융합, 창조의 중요성을 강조함
- 자신만의 독창적인 세계를 구축한 화가들에 대한 소개도 이어짐, 이 시장은 파블로 피카소의 ‘알제의 여인들’은 외젠 들라크루아의 같은 제목 작품을 모방한 것이나 피카소의 독특한 화풍이 입체주의로 그려졌기 때문에 2300억 원에 가까운 초고가에 팔렸다면서 독창성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함, 그러면서 미국의 추상표현주의 화가 ‘잭슨 폴록’과 ‘일렘 드 쿠닝’ 등의 독창적 작품들을 소개, 모방을 통한 새로운 창작의 영역을 개척한 프랑스 화가 ‘마르셀 뒤샹’과 콜롬비아 화가 ‘페르난도 보테로’의 작품도 보여줌
- 이 시장은 인간의 고통과 고뇌를 표현한 영국화가 ‘프란시스 베이컨’ 작품들, ‘절규’라는 작품으로 유명한 ‘몽크’의 여러 작품, 모든 작품이 멕시코 국보로 지정된 화가 ‘프리다 칼로’ 작품 등을 소개하며 화가의 화풍과 삶에 대해 스토리텔링 함, 생존 화가 작품 중 최고가로 팔린 ‘예술가의 초상’을 그린 ‘데이비드 호크니’, ‘서머셋 모옴’ 소설 ‘달과 6펜스’ 모델이 된 ‘폴 고갱’, 미국 CNN의 사랑을 주제로 한 영화 설문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키스’를 그린 ‘구스타프 클림트’의 작품세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함
- 이 시장은 국내 화가 중 시대의 아픔을 ‘소’의 모습으로 표현한 이중섭 화백의 작품, 132억원이라는 낙찰가로 국내 최고가의 작품인 ‘우주’의 작가 김환기 화백의 작품, 인간의 선함과 진실함을 표현하고자 했던 박수근 화백의 작품들을 열거하며 세 화가의 인생에 소개함
- 이상일 시장은 “우리가 남을 도우면서 보람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이 인체의 면역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버드 대학 실험 결과로 확인, 이런 효과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일했던 테레사 수녀의 이름을 따서 ‘마더 테레사 효과’라고 부른다”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들의 복지를 위해 활동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마더 테레사 효과’가 작동되고 있을 것”이라고 말함

- * 복지 관련 시설의 정보교류와 효율적인 지역복지네트워크 형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2023년 사회복지중사자 민관합동 워크숍'에는 약 160여명이 참석
- 행사를 주관한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한숙희 민간위원장은 “오늘 행사가 민관협치를 강화하고 새로운 방식의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특강을 통해 유익하고 새로운 지식과 시각을 제공해 준 이상일 시장께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다”고 말함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2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안내

마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저소득가구 과일 지원



- * 용인특례시 기흥구 마북동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홍용식)가 지난 12일 저소득가구 '비타민 충전' 과일 지원사업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힘
 - 사업은 올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으로, 지역 홀로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 30가구에 사과·배 등이 들어 있는 과일세트와 과일즙을 전달
 - 홍 위원장은 "어려운 이웃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를 촘촘히 살피고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밝힘
 - 동 관계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나눔 활동에 감사하다"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행복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말함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마북동 맞춤형복지팀)

3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안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랑의 고구마' 나눔 행사



- * 용인특례시 기흥구 서농동은 지난 12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권영지) 위원들과 각 단체 회원들이 지역 텃밭에서 '사랑의 고구마' 수확 행사를 열었다고 13일 밝힘
 - 수확한 고구마 2500kg은 지난 5월 회원들이 직접 파종해 가꿨다. 행사에는 회원 70여 명이 참여함
 - 이날 수확한 고구마 중 50상자(5kg 들이)는 지역 저소득 가정에 전달하고, 남은 고구마는 판매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수익금을 지원할 예정
 - 권 민간위원장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의미 있는 행사에 참여한 각 단체 회원께 감사드린다”며 “소외된 이웃을 돕는 활동이 지역사회에 확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함
 - 동 관계자는 “취약계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협의체에 감사하다”며 “민관이 협력해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서농동 맞춤형복지팀)

4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안내

원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위원장 장애인시설에 주유상품권 기탁



- * 용인특례시 원삼면은 김길자 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위원장(S-OIL 천일주유소 대표)이 지난 13일 지역의 장애인거주시설인 '새빛요한의집'에 100만원 상당 주유상품권을 기탁했다고 15일 밝힘
- 김 부위원장은 원삼면 미평리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S-OIL 주유소 사회봉사단' 일원으로 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이웃돕기 협약을 맺고 매년 주유상품권과 난방유를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원
 - 새빛요한의집 관계자는 “시설 이용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김 부위원장에 감사드린다”고 말함
 - 면 관계자는 “모두 함께 행복하게 사는 면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나눔 운동을 확산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힘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원삼면 맞춤형복지팀)

5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안내

영덕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푸른골 어울림 한마당' 행사 개최



- * 용인특례시 기흥구 영덕2동이 지난 14일 청곡초등학교에서 '2023년 영덕2동 푸른골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힘
 - 행사는 동 체육회 주축으로 통장협의회를 비롯한 영덕2동 6개 단체가 함께 참여한 행사로 주민 1800여 명이 참여, 어린이 참가자들이 많았고 어린이 사회자 2명이 진행
 - 행사는 동 체육회에서 주최하는 '푸른골 걷기대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주최하는 '희망나눔 바자회', 청곡초 어린이들과 학부모가 참여한 '푸른골 장터' 등 총 3개 마당으로 진행
 - 동 주민들은 3킬로미터 구간을 완주하는 걷기 체험, 청곡초 학생들은 플리마켓, 통장협의회는 재능기부로 다양한 체험 부스를 운영, 용인특례시 문화재단은 버스킹 공연을 선보임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먹거리와 바자회 후원 물품을 판매, 청곡초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은 수익금을 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할 예정
 - 마을 주민들은 걷기대회에 참가해 건강을 챙겼다. 바자회에서 생필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면서 불우이웃 돕기에도 기여
 - 참가한 한 주민은 “공연과 다양한 체험활동, 실용적인 바자회 등 남녀노소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마을 잔치가 열려 즐겁고 행복했다”고 말함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영덕2동 맞춤형복지팀)

6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안내

신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강남병원과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협약



- * 용인특례시 기흥구 신갈동이 지난 16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류상택), 강남병원(병원장 정영진)과 ‘복지사각지대 및 저소득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힘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도 참여해 활동 중인 강남병원은 협약에 따라 지역의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할 예정, 앞으로 동 협의체와 행정 복지센터가 각종 검사와 치료가 시급하지만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발굴해 병원에 추천하면 강남병원이 검사, 진료, 수술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비 중 비급여 항목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 동은 시 38개 읍면동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 가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 이 중에는 중증질환이나 급·만성질환이 의심돼 당장 검사나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어도 의료비 부담으로 진단받지 않거나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음

- 강남병원은 지난해부터 동의 저소득 100가구에 독감 백신을 무료 접종하고 식료품을 지원하는 등 지역의료기관으로 상생을 실천하고 있음
 - 정영진 강남병원장은 “지역주민들로부터 받은 신뢰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앞으로도 동 협의체와 함께 다양한 방식으로 나눔을 이어가겠다”로 밝힘
 - 동 관계자는 “몸이 아파도 돈이 없어 검사와 치료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듣고 안타까웠는데 강남병원에서 적극 지원해주셔서 감사 드린다”며 “협약을 통해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함
-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신갈동 맞춤형복지팀)

7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안내

서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약계층 홀로 어르신에 영양죽 지원



- * 용인특례시 기흥구 서농동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달 말까지 지역 건강 취약계층 홀로 어르신 20명에게 영양죽 지원과 건강상담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힘
 - 이번 사업에서는 동 직원이 지역 건강 취약계층 홀로 어르신에게 ▲영양죽 2상자(총 60포) ▲혈압, 혈당 등 기초 건강체크 ▲만성질환 관련 건강상담을 제공하고 맞춤형 지원 서비스도 안내할 예정
 - 협의체는 어르신들이 기초 건강체크를 통해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높이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어르신에게는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안내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
 - 동 관계자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로 건강 취약계층이 늘어나고 있다”며 “영양죽 지원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통해 건강 취약계층을 조기 발굴해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말함
-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서농동 맞춤형복지팀)

2. 중앙정부 정책 동향

1 중앙정부 복지현안

2024년 한부모가족 양육비·주거환경 지원 확대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확대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주거안정 지원 >



* 여성가족부는 제1차 한부모가족 기본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 단가 인상, 매입임대주택 확대 등 다양한 한부모가족 생활 안정 정책을 추진(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 : '23년 505,562백만원 → '24년 정부안 544,143백만원(+38,581백만원, 7.6% 증))

* 2024년부터 달라지는 한부모가족지원제도의 주요내용

1.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확대

* 2024년부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완화(2인 가구 기준 약 232만 원, 3인 가구 기준 약 297만 원)

- 또한 만 18세 미만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원이 가능(예시_고등학교에 다니는 '06년 2월생 한부모가족 자녀의 아동양육비 지원 기간 변화)

제도 개선 전	▶	제도 개선 후
'24년 1월까지		'24년 12월까지 (+11개월)

- 소득기준 완화 및 지원연령 상향을 통해 2024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인원은 약 3.2만 명 증가할 것으로 추산

· 아동양육비 지원인원 : ('23) 23.5만 명 → ('24) 26.7만 명(추정)

*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도 인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자녀 1인당 현재 월 20만 원에서 월 21만 원으로 1만원 인상

-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은 '19년 월 13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인상된 이후 4년 간 동결되었으나, '24년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지원금액 인상을 결정
-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 65%이하)는 자녀가 0-1세 영아인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현재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연령	제도 개선 전	▶	제도 개선 후
0-1세	35만 원		40만 원
2세 이상	35만 원		35만 원

2.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안정 지원

-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매입한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확대하고,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보증금 지원 금액을 올림(공공매입 임대주택 : ('23) 266호, 보증금 최대 9백만원 → ('24) 306호, 최대 10백만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유형을 자녀 발달 수준에 따른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출산 지원시설) 입소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
 - 모자·부자·미혼모자(기본형, 공동생활형 등)복지시설 9종 → 출산·양육·생활·일시지원시설 4종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 : 중위 100%이하('23) → 소득수준 무관('24)
-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참조:여성가족부) 참조

2 중앙정부 복지현안

2024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계획 공고

< 10월 16일(월)부터 11월 6일(월)까지 한국장애인개발원 신청 접수 >

- *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10월 16일(월) 「2024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계획」을 공고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어린이집, 각급 학교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 등은「장애인복지법」제25조 등에 따라 매년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우리 사회에 올바른 장애감수성을 키우는 교육으로, 단기적으로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고, 장기적으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포용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
 - 보건복지부는 보다 충실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1년부터 일정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 현재 전국에 총 22개 기관이 지정되어 운영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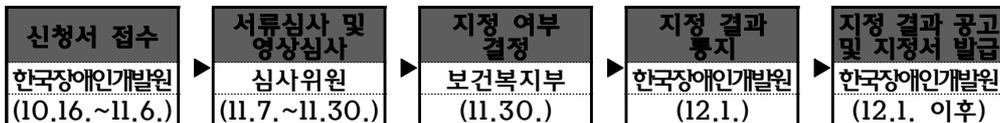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에 적합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

- (기관의 역량) 기관의 사업 운영 능력, 조직구성의 전문성, 기관장 의지 등
- (교육 운영 적정성) 계획 수립 충실성, 교육 운영 강사의 역량 등
- (교육 프로그램 및 훈련기반 적정성) 교육 교재 및 교안의 적정성, 교육기관 환경의 적정성 및 훈련 노력도 등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시설·단체 등은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의 교육 역량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이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에 적합한지 심사

①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②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③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④ 정관이나 규약 등에 인식개선교육의 실시를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법인·비영리민간단체, ⑤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식개선교육의 실시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법인·시설·단체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주요 지정 절차>



- 신청 기간은 10월 16일(월)부터 11월 6일(월)까지이며, 한국장애인개발원 이메일로 신청 서류접수,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한국장애인개발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보건복지부 누리집>알림>공지사항>공고, 한국장애인개발원>알림>공지사항

붙임 1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개요

*** 지정 개요**

- (추진배경) 실효성 있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위하여, 교육 내용의 표준화 및 효과적 질 관리를 위한 전문자격을 갖춘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필요(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3(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 등)
- (지정기준)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 교육 운영 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인력·교재 등의 전문성 및 적정성,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의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기관의 역량, 교육 운영 적정성, 교육 프로그램 및 훈련기반 적정성 등
- (주요역할) 체계적인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 의무교육 대상기관 모집, 장애인식개선교육 세부계획 수립, 양질의 장애인식개선교육 교안 또는 콘텐츠 개발, 효과적인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및 관련 자료 보관, 인식개선교육기관별 소속 강사 역량강화,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 모니터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보고 등

*** 지정 혜택**

-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배점표 상‘교육방법 및 활용’항목 만점 부여
 - (실적배점표 도입) 의무교육 대상기관의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실적 점검 제도 도입
 - 인식개선교육기관을 통한 교육을 받은 기관의 경우, 30점 배점 중 30점 만점 부여
- ※ 보도자료 참조(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팀)

3 중앙정부 복지현안

보호자-교사 간 발생하는 보육활동 침해 상황, 이렇게 대응하세요!

< '보육교사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응 가이드' 제작 및 배포 >
< 보육교사의 정당한 보육활동 보호 및 보육환경 제공 >

-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10월 16일(월) 어린이집 현장에서 발생하는 보육활동 침해행위로부터 보육교사의 보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보육교사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응 가이드」를 제작하여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배포한다고 밝힘
 - 이번 대응 가이드는 지난 8월 발표된「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중 보육교사의 보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됨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지난 4월 보육교사가 현장에서 경험하는 노동권 침해,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상황별 법령정보와 대처방안을 담은 「보육교사 권리보호 핸드북」을 제작하여 배포한 바 있음, 이후 추가적으로 보육활동 침해에 대한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함
 - 「보육교사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응 가이드」는 어린이집에서 원아의 보호자와 교사 간 소통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육활동 침해 행위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유형별 사례 및 법령정보, 상호작용 예시를 비롯한 대응 방안을 함께 제시함
 - 보육활동 침해 행위: 폭행·상해, 협박, 명예훼손·모욕, 불법정보유통, 업무 방해, 보육활동 부당 간섭 행위, 보육활동 중 무단 촬영·녹음·배포 행위
 - 또한, 대응 로드맵을 제시하고, 보육활동 침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육 현장에서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대응 절차와 관련 제도를 안내
 - 「보육교사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응 가이드」는 보건복지부 누리집, 한국보육진흥원 누리집(www.kcpi.or.kr-알림마당-발간물-기타발간물)에서 확인 가능
 - ※ 보도자료 참조(보육정책관 보육정책과, 한국보육진흥원 교직원인재개발본부)

4 중앙정부 복지현안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이 보다 안전해집니다

< 10월 17일 복지부-국토부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체계 구축 업무협약 >
 <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노인일자리로 역량 있는 안전점검원
 집중 양성 >

- *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10월 17일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관리가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업무협약을 체결
 - 이번 협약을 통해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가 기술·인력·비용 지원 등으로 더욱 강화되어 위험시설을 조기에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시설물안전법」상 1~3종 시설에 미포함된 사회복지시설 등)
 - 노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은 노후화되고 있는 반면, 지자체의 관리인력이 부족하고 점검대상 시설수가 과다하여 안전관리상 문제가 우려되고 있음
 - 이에 양 부처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노인일자리 참여자 3천 명(누적) 이상을 안전점검 전문인력으로 양성하여 18만 건 이상의 점검을 통해 안전 관리를 보다 강화할 계획

구 분	2023	2024	2025	2026	2027
* 양성인원(누적)	2백 명	4백(6백)	6백(1.2천)	8백(2천)	1천(3천)
* 점검 건수(누적)	12천 건	24천(36천)	36천(72천)	48천(120천)	60천(180천)

- * 보건복지부는 경로당 안전 점검기준을 정비하고 노인일 자리를 활용하여 안전 점검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 국토교통부는 노인일 자리를 통해 채용된 안전점검원의 역량강화, IT 기반의 스마트 점검 웹을 통한 신뢰성 제고, 점검결과의 데이터베이스(DB)화 등을 지원할 예정
 - 국토교통부는 점검 결과, 안전우려 시설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정밀안전 전검을 지원하여 신속한 조치방안을 제시하고, 그린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 하여 시설 보수·보강,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 등 기능보강비의 70%까지 지원할 계획(지자체가 국토부 그린 리모델링 사업 응모 시 가점 부여를 통해 대상 사업으로 우선 선정 지원)

붙임 1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방안

1. 추진배경

- * 국토부는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지원 차원에서 지자체 등에서 요청 시 무상점검 지원 중이나, 최근 한정된 자원으로 지원에 한계(지원 가능한 점검 수는 연간 4천 건 수준이나 최근 신청 수는 8천 건 이상으로 확대)
 - 현행 무상 안전점검은 육안점검의 한계로 안전상 결함 확인 시, 지자체의 정밀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이 재정상 문제로 지연
- * 복지부의 경로당 지원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05년)된 후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시설 관리·운영, 기능보강 등에 편차 발생(냉·난방비 및 양곡비는 국고 지원/ 기능보강비, 운영비, 부식비는 지자체 부담 중)
 - ☞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 대상 (복지부)안전점검 전문인력을 양질의 노인일자리로 창출하고, 안전이 우려되는 시설은 (국토부)신속한 기능보강까지 지원 ⇒ 부처 간 협업으로 시너지 효과 창출

2. 주요내용

- * (제도정비) 복지부는 경로당 점검기준 정비와 스마트 웹 활용 의무화, 국토부는 IT기반 스마트 웹(스마트폰으로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시스템(SFMS)에 접속하여 18개 점검항목의 영상, 문자정보 등을 입력 시 보고서가 자동 생성 될 수 있는 점검용 반응형 웹)을 개발·보급 및 교육, 성과검증 지원
- * (노인일자리 연계) 복지부는 노인일자리(사회서비스형) 참여자를 안전 점검 인력으로 활용 지원, 국토부는 안전점검원의 교육을 전담하여 그 성과에 따라 '24년도에 전국 확산 추진
 - ☞ '24년 400명 투입 2.4만 건 점검 실시, '27년까지 일자리 참여자 1천 명 활용하여 18만 건(4년간 누적) 이상 점검 실시('23년 약 210명 참여 중)
- * (안전관리 지원강화) 국토부는 점검 결과 안전성 우려 시설(점검자가 스마트 웹을 활용하여 점검한 결과를 입력하고,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성과검증을 통해 안전성이 미흡, 불량한 것으로 확인된 시설)은 정밀안전점검을 실시 후, 안전 위험시설은 그린 리모델링 사업(경로당, 어린이집 등 준공 10년 이상 시설의 에너지 성능향상, 생활환경 개선 등 공사비 70% 지원('23년 1910억 원))과 연계하여 리모델링 등 기능보강 예산을 해당 지자체에 지원

3. 기대효과

- * 소규모 취약시설 위험시설 조기 확인과 지자체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 * 안전점검비 2.7천억 원 투자효과와 일자리 3천 개 창출('27년까지 누적)

붙임 2

소규모 취약시설 관련 Q&A

- Q. 소규모 취약시설이란 ?
 A. 「시설물안전법」상 1~3종 시설물이 아닌 시설 중에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이나 재래시장 등을 말함
- Q. 소규모 취약시설 현황 ?
 A. 소규모 취약시설 수는 전체 8.2만 개이며 이중 사회복지시설이 8.1만 개로 99%로 차지(경로당은 4.6만 개 56%, 어린이집 2.1만 개 26% 등)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등 기타 시설물이 1%를 차지하고 있음
- Q.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방안 주 내용은?
 A. 복지부와 국토부 양 기관에서 각자 운영하던 점검제도와 보조금 사업을 상호 연계하여 지자체의 부족한 점검인력을 노인일자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경로당 등 시설의 보수·보강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
- 이를 위해 우선 「시설물 안전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의 점검방법 및 체계를 상호 연계하여 점검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노인일자리 사업(복지부)을 통해 점검인력을 채용·육성하고, 그린 리모델링 사업(국토부)과 연계하여 보수보강비 지원방안을 마련함
- Q. 지자체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
 A. 지자체는 경로당 시설관리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지역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가능하며, 계획대로 이행될 경우 '27년 기준으로 연간 900억 원의 안전점검 비용 투자 효과와 매년 시니어 일자리 1천 개 이상 창출 가능함
- ※ (누적효과 '23-'27년) 안전점검비 2.7천억 원 투자 효과와 일자리 3천 개 창출

구 분	2023	2024	2025	2026	2027
연도별 채용인원(누적)	2백명	4백(6백)	6백(1,2천)	8백(2천)	1천(3천)
시니어 시설점검(건수)	12,000	24,000	36,000	48,000	60,000
소요 예산(누적)	16억원	32(48)	48(96)	64(170)	80(250)

- Q. 시니어 안전점검원의 자격요건은?
 A. 60세 이상 채용 지역 거주자일 경우 누구나 가능하며 관련 분야(건축·토목) 자격증 소지자는 채용 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
- ※ (60대 이상 기술인 현황) 토목건축 분야 12만 명, 3만 명은 무직상태('22.12, 기술인협회)
- 또한, 국가 혹은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개인 여건상 안전점검 업무에 차질이 있는 자는 제외
- Q. 시니어 안전점검원의 안전점검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지?
 A. 사업 참여자의 원활한 점검 수행을 위해 손쉬운 점검용 스마트 웹을 제공하고, 점검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
- 특히, 시니어 안전점검결과는 실시간으로 전문기관(국토안전관리원)에서 성과검증을 하여 안전점검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임
- Q. 지자체에서 사업참여 방법은?
 A. '24년은 금년도 하반기 중 참여 기초 지자체를 공모방식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25년부터는 매년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 수요를 조사하여 지자체별 시니어 채용인력수를 배정할 계획임

붙임 3 **소규모 취약시설 관련 통계자료 (국토부)**

① 소규모 취약시설 현황

합계	사회복지시설 (‘22.12 기준)				기 타	
	계	경로당	어린이집	기타	전통시장	토목시설
81,781	80,613	45,915	21,131	13,567	659	5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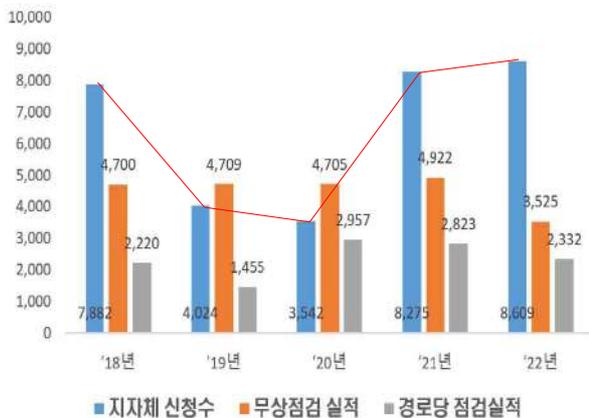


< 시설물 종류별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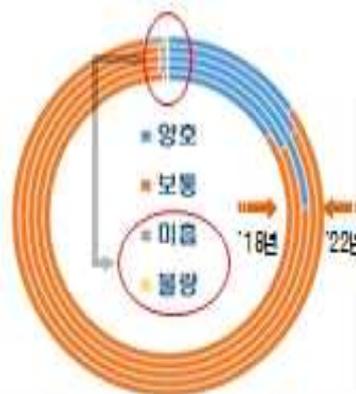
< 노후시설 현황 및 전망 >

② 무상안전점검 신청 및 지원실적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무상점검 신청건수	7,882	4,024	3,542	8,275	8,609
무상점검 실적건수	4,700	4,709	4,705	4,922	3,525
미흡/불량시설 수(비율)	30(0.6%)	55 (1.2%)	44(0.9%)	50(1.0%)	88(2.5%)



< 무상점검 신청 및 실적 >



< 점검결과 현황 >

붙임 4 **스마트 시설안전관리 매니저 사업개요 (복지부)**

* 사업개요

- (사업명) 스마트 시설안전관리 매니저
- (사업유형) 사회서비스형 +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노인일자리
- (사업내용) 경로당 중심 ①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②점검내용은 스마트 앱국토안전관리원 개발 활용한 관리, ③사후관리 지원(미흡시설) 등
 - (사회서비스형)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직무
 - (선도모델) 스마트 시설안전관리 매니저 양성·교육, 모니터링 등

- 사업 추진체계



* 세부 추진내용

- 안점점검 체계 구축
 - 경로당 시설점검 체크 리스트 마련(복지부) 및 점검내용을 반영하여 스마트 점검 웹 시스템 개발(국토부)
- 사업모델 개발
 - (사회서비스형) 스마트 점검제도 도입 및 활용하여 경로당 안전점검 시행 및 사업관리, 사후관리 등 추진
 -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스마트 시설안전관리 매니저 양성 교육, 스마트 점검제도 모니터링 등 직무 수행으로 선도모델 신규도입

붙임 5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국토부)

* 사업개요

- (추진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 제27조,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 (사업내용) 에너지성능 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노후 공공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비용 지원
- (대상모집)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별도 모집공고 (4월 中)
- (사업규모) 총 1910억 ('23년 기준, 국고보조금 기준)

* 지원자격

-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5호에 따른 '공공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중인 기관

* 지원대상

- '공공건축물' 중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지난 건축물 중 아래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사용승인일 2013년 1월 1일 이전)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지역보건법」, 「농어촌 등 보건의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이하 "경로당")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규칙」에 따른 파출소 등

* 지원내용

- (지원항목) 에너지공사 항목(필수항목 2개 이상 적용), 부대공사 및 기타항목 등 그린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공사비 지원

※ 보도자료 참조(노인정책관 노인지원과,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관)

5 중앙정부 복지현안

지역·필수의료 살리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 보장

- <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를 통한 전달체계 혁신 등 구조적 해법 모색 >
- < 지역에서 중증 치료 완결, 필수의료 네트워크 강화로 응급 공백 해소 >

추진 배경

- ① 지역·필수의료 붕괴 위기 → 전달체계 정상화, 인력 확충 등 근본 해법 시급
- ② 넥스트 팬데믹 대비 → 코로나19 대응 시 막대한 재정 투입, 지역의료 강화 필요
- ③ 지방소멸 방지 → 지역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한 지역의료 인프라 개선 중요

1.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1 국립대병원 등 필수의료 중추 육성

-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중증·응급 최종 치료가 완결 되도록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의 의료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
 - (인력) 의료역량의 핵심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국립대병원의 적극적·탄력적 인력 확충을 어렵게 하는 총인건비, 정원 관리 등 공공기관 규제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 ※ 규제 혁신은 지역·필수의료 거점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능동적 투자확대를 위해 추진, 공적 기관으로서 책임·의무는 지속 유지

< 국립대병원 인력 확충 제약 요인 >

- ▶ (총인건비) 연 1~2% 증액('23. 1.7%) → 민간·사립대병원과의 보수 격차로 우수인력 확보 곤란 및 기존 인력 유출 초래
 - * 보수는 연공서열식 산정으로 생산성 저해, 예산 심의 등에 의해 사실상 통제
- ▶ (정원) 관계부처 심의를 거쳐 인력 수요 탄력적 반영 곤란

- (공공정책수가) 국립대병원에 대해서는 중환자실, 응급실 병상·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사회적 필요도가 높으나,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 센터에 대한 보상 강화를 지속 확대할 계획
- (혁신적 R&D) 필수의료 분야 혁신적 R&D 투자로 통해 국립대병원의 연구역량을 대폭 강화하여 진료-연구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의료진의 연구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진료-연구 병행지원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
- (인프라 첨단화) 노후화된 중증·응급 진료시설 및 병상, 공공전문진료센터 등 시설·장비 개선을 우선 지원하고, 정부 투자 확대를 추진(정부 지원 비율: 진료시설·장비 25% vs 교육·연구시설 75%)

2 지역 내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강화

- 지역의 병·의원이 기관 목적과 특성에 맞게 필수의료 제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역 병·의원의 역할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
 - (1차 의료기관) 만성질환 위주의 1차 의료지원을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전반으로 확대하고, 예방·관리, 교육·상담, 퇴원 후 관리 등을 지원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 등을 확대할 계획
 - (2차 병원) 우수한 지역 종합병원을 전국 70개 중진료권별로 육성하여,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과 중점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필수의료 수출·응급 공백을 해소하고 환자의 상급병원 쏠림을 방지하고자 함
 - (전문병원) 필수의료 분야 전문병원 확충을 유도하고, 1~3차 의료기관의 협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병원 중심 협력진료 모델을 확산할 계획
- 국립대병원 등이 총괄조정하는 지역 내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강화
 - (권역 강화) 국립대병원 등이 지역 필수의료 자원관리, 공급망 총괄, 각종 필수의료 지원사업 및 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등을 주도할 수 있도록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강화

[국립대병원 등 총괄조정 역할]

역할	주요 내용
자원관리	▶ 인력·시설·장비 등 필수의료 자원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필수의료 인력 양성·공급 및 시설·장비 확충·개선 총괄
공급망 총괄조정	▶ 권역 내 중증·필수 최종치료 역할 강화 ▶ 1~3차, 공공전문진료센터, 공공의료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성·운영 및 진료정보 교류 체계 확립
성과평가·재원 배분	▶ 공공전문진료센터, 지방의료원 등 성과평가 및 재원 배분에 권역 책임의료기관 참여(복지부 → 복지부+지자체+권역 책임의료기관)

- (기관 협력 활성화) 진료정보 교류, 의뢰·회송 지원 강화를 바탕으로 국립대병원과 지역 병·의원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하는 ‘지역 필수의료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신설할 계획
 - ※ 권역 내 1~3차 의료기관 협력진료 및 필수의료 강화 중심으로 기존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수도권 대형병원-지역 병·의원, 비용효율화 중심)과 차별화

< 동일 지역권 진료 의뢰·회송 활성화 방향 >

- ▶ 동일 시도 내 진료 의뢰·회송 유인 강화를 위한 수가 개편
 - * 상급종합병원→병·의원 회송 수가만 제도화, 병·의원→전문병원·종합병원 의뢰·회송은 수가 시범사업 중
 - 수가: (의뢰) 의원 기준 의뢰서 1만원, 의뢰서+진료정보 1.5만원, 의뢰서+진료정보+영상정보 2만원, 동일 시도 내 의뢰 시 3천원 가산 / (회송) 종합병원 기준 입원 5.5만원, 외래 4만원 수준

구분	동일 시도			타 시도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1차		▲ 의뢰인상	▲ 의뢰인상		▲ 의뢰삭감	▲ 의뢰삭감
2차	▲ 회송인상		▲ 의뢰인상	(회송유지)		▲ 의뢰삭감
3차	▲ 회송인상	▲ 회송인상		(회송유지)	(회송유지)	

- ▶ 상급종합병원 평가지표에 동일 시도 2차 의료기관 회송 실적 반영

- (인적협력 확대) 중증·응급 적기 대응을 위한 ▲365일 의료기관 순환당직제, ▲전문치료팀(심뇌혈관 질환 등) 등 인적 협력모델도 지속 확대

3 넥스트 팬데믹 대응체계 강화

- 넥스트 팬데믹 대응을 위해 지역의료 체계 및 인프라를 강화한다.
 - (컨트롤타워) 현행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권역 필수의료협의체 등을 중심으로 지역 보건의료 거버넌스 확립하여 팬데믹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지역의 의료자원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
 - (감염병 대응) 감염병·재난 상황 발생 시 환자 분류, 이송, 중증병상 및 인력 확보 전반에 이르는 대응을 국립대병원 등 거점 기관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즉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할 계획
 - * 국립대병원이 시도 감염병대응위원회 구성·운영 및 사무국 역할 지원
 - (공공인프라 혁신)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 협력모델 수립을 통해 지역 공공인프라의 역량을 강화하여, 팬데믹 대응 기반을 확충하고자 한다. 특히, 국립대병원 교수의 지방의료원 등 출장 진료를 활성화하고, 진료 및 인적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

<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공공병원 표준 협력모델 예시 >

- ▶ 국립대병원이 권역 내 공공병원과 네트워크를 맺어(위탁, MOU 등), 인력교류, 전자의무기록(EMR) 통합 등을 통한 환자 의뢰·회송, 교육·경영 컨설팅 등 실시
- ▶ 공공병원을 국립대병원이 원활히 협력하여 난치·재발 환자는 권역 책임의료기관 의뢰(진료정보 교류로 추가 검사 최소화) → 지역의료 활성화, 수도권 풀림 완화

2.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1 인력 확충 기반 강화

- 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공백 해소,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
- 또한, 교수 확보 및 평가 인증 등 의대 교육 질 관리 방안, 과학적 인력수요 전망 및 합리적 정원 조정시스템 구축도 추진할 예정

2 지역·필수 분야 유입 촉진

- 필수의료 수가 인상(참고2), 근무여건 개선,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등 필수의료 패키지 집중 지원을 통해 피부·미용으로의 인력 유출을 방지
- 의대 입학부터 수련, 병원 인력 운영에 이르기까지 의사 인력이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인력대책도 함께 추진
 - (지역인재)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이 의대에 입학하여 지역의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선발을 지속 확대
 - (수련 혁신) 전공의 수련·배정 체계를 개선하여 지역·필수 분야 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필수진료 科 수련비용도 국가에서 지원
 - 비수도권 배정 확대(40→50%), 중장기적으로 의대 입학정원과 연계 배정

- (전문의 중심 인력 운영)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모델 확산을 통해 의료 질을 높이고 필수의료 전문의가 좋은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
- ▲ 필수의료 전문의 고용 기준 강화 및 인건비 지원, ▲ 필수의료 인력 근무 체계 개선 등 일·가정 균형 및 연구년 보장, ▲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개선 등
- 「제2차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에 따라 지방병원 간호사 채용 활성화, 필수 의료 분야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간호인력의 지역·필수 분야 유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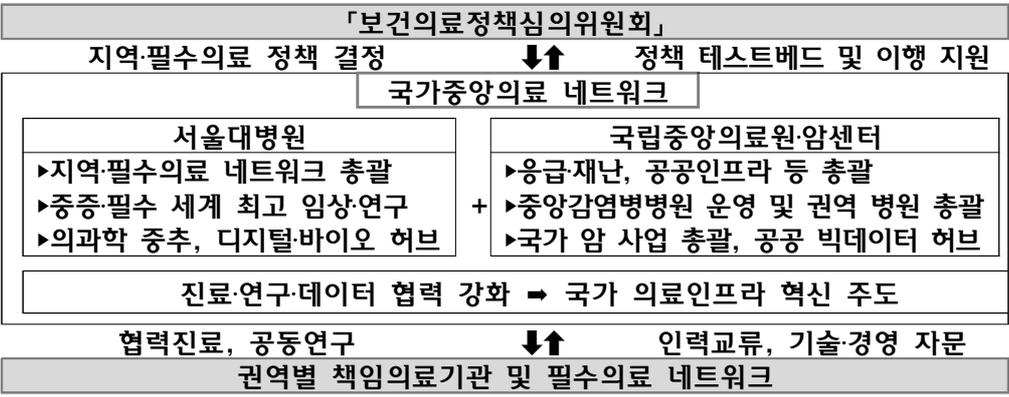
3. 추진 기반 강화

1 국가지원체계 강화

- 보건 의료정책심의위원회 중심으로 지역·필수의료 총괄·조정 체계 확립하고, 지역·필수의료 재정투자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
- (日) ‘지역의료개호 종합 확보기금’ 신설(’14), 1.6조원 규모, 도도부현 설치, 재원의 2/3은 국가 지원(소비세 증가분), 전달체계 정비, 인력 및 재가 서비스 확충 등 지원
- 이와 함께, 필수의료 인력이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분쟁 발생 시 환자 피해구제 및 의료인의 법적 부담 완화 방안도 모색해 나가고자 함
- 우선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재원 전액 국가부담 및 보상금 인상 등 실효적 보상방안을 마련할 계획
- 의료인 형사처벌특례 범위 확대, 필수의료분야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등을 통하여 필수의료 종사자의 민·형사상 부담도 완화할 예정

2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

- 서울대병원-국립중앙의료원·암센터를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상호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중증 최종치료 역량 강화, 필수·공공의료 혁신을 견인할 수 있도록 국가중앙병원 역할을 대폭 강화
- (서울대병원) 세계적 중증·필수 의료기관으로 육성하여 지역의 의료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임상·연구 분야 국가중앙병원 역할을 강화하고 보건 의료 정책 개발·연구 등 정책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계획
- (국립중앙의료원·암센터) 대대적 기관 혁신 및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명실 상부한 응급, 감염병, 공공인프라 총괄·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함



3 국립대병원 소관 변경

-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진료), 보건의료 R&D 혁신(연구), 인력 양성·공급 원천(교육) 등 의료 혁신 거점으로 획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할 계획
- (혁신 네트워크) 국립대병원 간 연계·협력 활성화를 통해 진료, 연구, 교육이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 혁신 네트워크’ 구축도 추진
- (대학-병원 협업) 의사 과학자 양성, 디지털바이오 R&D 혁신 등을 위해 국립대병원과 국립대의 협력시스템도 강화

< 참고: 필수의료 혁신 3대 네트워크 >

지역 필수의료 네트워크	국가중양의료 네트워크	국립대병원 혁신 네트워크
국립대병원 등 거점 중심 1~3차 의료기관 협력 ➔ 중증응급 공백 해소	서울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등 협력 ➔ 지역필수의료 집중 지원	전체 국립대병원 간 진료·연구·교육 협력 ➔ 역량 강화, 운영 혁신
종적·횡적 긴밀한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필수의료 혁신, 시너지 창출		

4. 향후 추진계획

- 혁신전략 추진을 위해 복지부는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과 지역·필수의료 혁신 T/F를 통해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만들어 신속히 추진할 계획
- 법·제도 개선 및 재정 투자 확대 필요 과제에 대해서는 T/F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 전달체계 정상화 지원, 지역·필수 보상 강화 등 건강보험 수가에 관련된 사항은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24~'28)에 반영하고자 함
- 또한, 국립대병원의 안정적 소관 변경과 혁신 추진을 위해 복지부, 교육부, 국립대학, 국립대병원간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긴밀히 협력할 계획

※ 보도자료 참조(보건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

6 중앙정부 복지현안

내년부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로 통합 운영

< 기존 4자리(1393) 번호 등에서 기억하기 쉬운 세자리로 단축, 통합 운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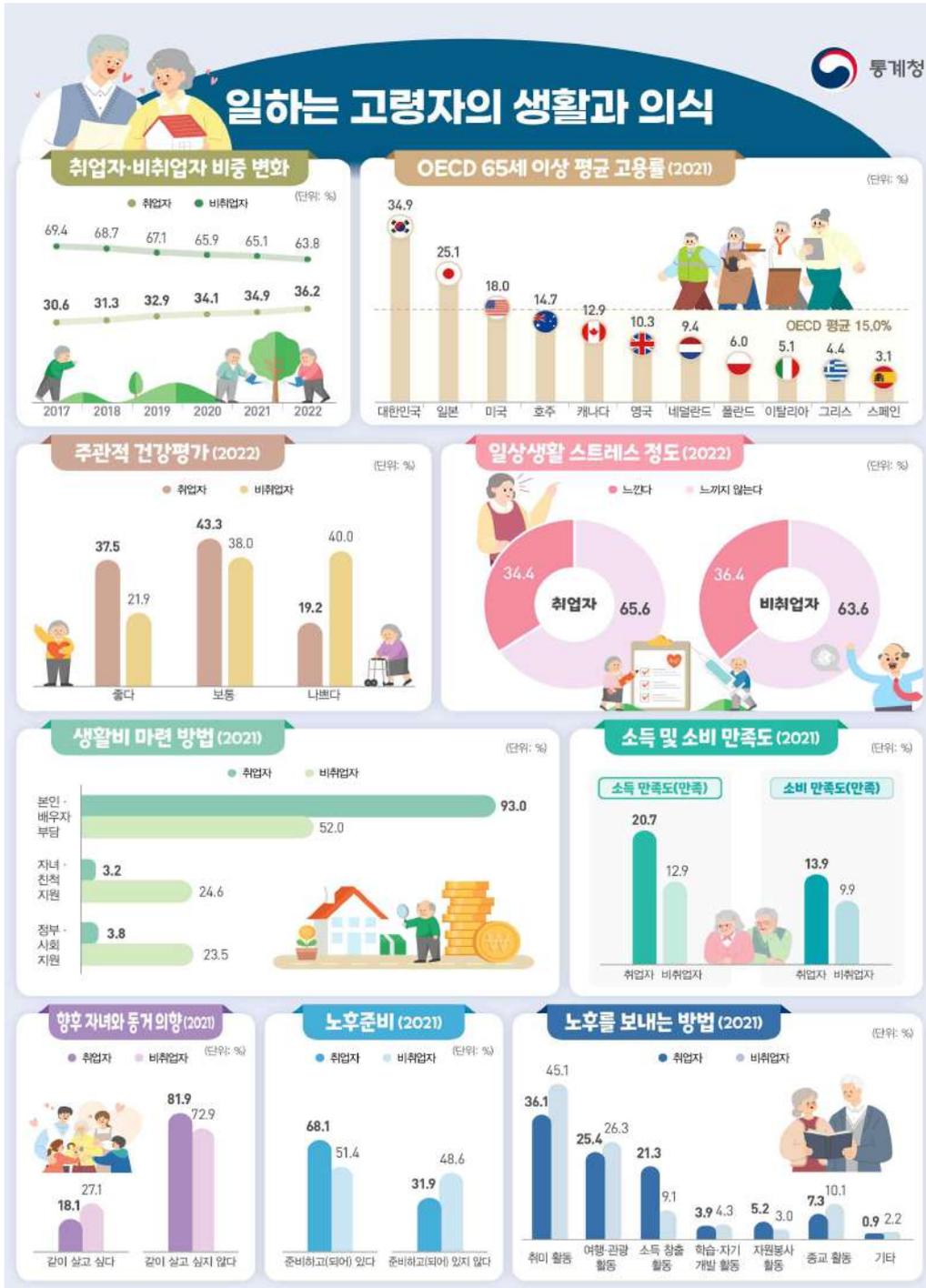
-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23일 (월) 자살예방 상담 전화번호를 알기 쉬운 세자리 긴급번호(109)로 통합하며 2024년 1월부터 운영한다고 발표함
 -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부터 국민통합위원회와 함께 자살예방정책을 논의해 왔으며, 지난 8월 25일 국민통합위원회 1주년 성과보고회에서 '세 자리 통합 상담번호 구축' 정책이 제안됨에 따라, 관계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자살예방 상담번호를 (1393)에서 (109)로 개편할 예정
 - 현재 운영 중인 자살예방 상담번호(1393)은 자살 예방을 위해 연간 10만 건이 넘는 전문적인 전화 상담을 수행해왔으나, 아직 인지도가 낮고, 상담사 부족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 상담전화(1577-0199), 청소년 상담전화(1388) 등을 함께 홍보
 -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자살률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 이에 자살예방 상담번호를 2024년 1월부터 기억하기 쉽고 긴급성을 담은 번호 (109) 하나로 통합 안내하고 상담 인력 충원도 추진
- * 통합번호 (109)는 '119'와 같이 자살이 '구조가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고, '㉠ 한 명의 생명도, ㉡ 자살 zero, ㉢ 구하자'라는 의미를 포함
 - 한편 자살예방 상담전화의 응대율은 최근에는 70%까지 개선된 상황이며, 통합번호 (109) 운영에 따라 2024년 예상되는 상담 수요 증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상담원 확충 ▲야간과 새벽 등 취약 시간대 집중 인력 배치 ▲상담원의 장기 근속 유도 등을 통해 안정적인 응대율을 확보할 예정, 또한 통합번호(109)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나아가 자살예방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

※ 보도자료 참조(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3. 통계로 보는 복지

1 중앙 통계현안

2023 고령자 통계



※ 자료 : 통계청 자료(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